

한국, 조선, 간만(間滿) 문학사 기술의 동질성과 이질성

李 起 哲

1. 서 론

문학사 연구는 그간 시각과 방법론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척되어 왔다. 더러는 思潮중심으로, 더러는 문단활동 중심으로, 더러는 작가, 작품 중심으로, 또 더러는 정신사적 변화와 흐름 중심으로 다양하고 깊이 있게 연구가 진척되어 온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생산하는 한 문학사 기술도 영구히 중단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 문학사 기술도 그 시각과 방법론상의 여러가지 차이를 노정하고 있고, 더우기 1988년 중반기 이후, 북한문학에 대한 해금조치가 이루어진 뒤 접할 수 있는 조선문학사류들과 南, 北 文學史 記述의 현격한 차이는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숙고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거기다 延邊朝鮮族 文學史까지를 아울러 고찰한다면 이 문제는 더욱 더 깊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한국, 조선, 간만 문학사 기술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고찰하되 가급적 동질성보다 이질성 중심으로 문제점을 비교 검토할 것이며, 주요한 비교 검토 대상으로는 한국, 조선, 간만 문학사 기술의 시점, 문예이론, 문학사 시기구분, 주요 취급 작가와 작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문학사에서는 白鐵의 《朝鮮新文學思

* 이 논문은 199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학육성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潮史》(백양당, 1947), 趙演紘의 《韓國現代文學史概觀》(전집, 5, 어문각, 1977), 金允植, 김현의 《韓國文學史》(민음사, 1973), 조선문학사에서는 박종원, 최탁호, 류만의 《조선문학사》(열사람, 1988),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사》(열사람, 1988),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통사》(인동, 1988), 박종원, 정홍교, 류만의 《조선문학개관》(인동, 1988), 간만문학사에서는 권철, 임범송의 《조선문학연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와 논문으로, 권철의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진달래, 1985), 〈중국조선족당대문학발전개요〉(두견, 1988)를 주요 자료로 쓴다.

이상의 연구에서 본고가 기대하는 결과는, 세 가지 문학사 기술에서 조정된 차이점을 규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와야 할 통일 시대에 대비한 문학사, 이를테면 통일문학사가 쓰여져야 할 때 본고에서 드러난 문학사의 이질성과 가치기준의 차이를 가능한 한 좁히고 진정한 우리 문학사로서의 면모와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것은 이 방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로서의 우리들의 희망이자 책무이기도 하다.

2. 본 론

사학계에서도 이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한 연구가 나와서¹⁾ 동학, 갑오농민전쟁,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3·1운동, 김일성 항일유격대 활동 등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차를 밝힌 바 있지만, 문학에서도 최근 수삼년 동안 월북, 재북 작가, 시인과 작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동안 유보되어 왔던 북한문학 연구가 큰 폭으로 진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개별적 연구로는 큰 성과를 올린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남북 문학, 그리고 연변 조선족문학과 문학사까지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1) 강만길, 남북한 역사인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창작과 비평, 1989년 봄호, 외 고대사 부분의 김정배교수의 논문 등이 있다.

그런 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 문예이론, 문학사 시기구분의 차이, 문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주요 작가, 시인을 비교 검토한다.

1) 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

여기서 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란, 한국, 조선, 간만문학사가 가진 문학사 기술의 시점, 다시 말하면 문학사 기술의 토대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점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한국문학사²⁾만 하더라도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가 문예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 개관》이 문단중심의 문학사 기술을 하고 있으며, 김윤식의 김현의 《한국문학사》가 意識을 중심으로 하는 문학사로 기술되고 있어 문학사 기술의 일치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는 전자에 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문학사 기술을 의식을 중심으로 하되 내적으로는 개인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봉건시대와 근대를 개인의식의 有無에 두어 분리하고 외적으로는 식민지 치하에서의 민족의식의 발견에 두어 문학사 기술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위의 세 가지 한국문학사³⁾는 문예사조, 문단활동, 의식 중심의 문학사 기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북한의 문학사들은⁴⁾ 이러한 한국문학사 기술의 시점과는 매우 다른 시점과 태도로 문학사를 기술한다. 이러한 북한의 문학사 기술 태도는 역사학계에서 말하는 이론성, 현재성과 통하며 개별 사실보다 통합적 문학사 서술에 이바지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것은 한국문학이

2) 여기서 한국문학사라 함은 북한의 조선문학사, 연변 조선족문학사와 구별하기 위해 남한의 문학사를 통칭하는 말로 쓴다.

3) 한국문학사에서 이 세가지 문학사 외에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할 문학사로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근·현대문학사 기술이 검토의 대상이 됨으로 이를 제외했다.

4)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조선문학사, 조선문학통사, 조선문학개관 등을 아울러 북한 문학사라고 칭한다.

이렇다 할 한국문학의 독자적인 이론을 개발하지 못하고 서구 이론의 맹목적 추수에 급급했던 사실에 비해서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예이론이 개발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쉬이 이해된다. 지금 출간되어 있는 《북한의 문예이론》(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인동, 1989)⁵⁾ 역시 그들이 언명하고 있는 만큼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독창적인 문예 이론인가는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이론 가운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은 1905년에 발표된 레닌의 <당조직과 당문학>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⁶⁾ 종자론, 속도전과 같은 문예이론은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론화한 창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만큼 북한의 문예이론은 김일성의 교시에 철저히 복속된 것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예속된 것이지만 이 이론을 토대로 하여 기술된 문학사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가설을 용인하지 않는 실천적인 문학사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것을 보기 위해 《조선문학사》《조선문학통사》와 《조선신문학사조사》《한국문학사》의 서술 개요를 대비해 보자.

1. 김일성의 지도 밑에 항일혁명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학예술
2. 항일혁명투쟁의 영향 밑에 발전한 진보적 문학

조선문학사(1926~1945)

1. 1919~1930년의 프롤레타리아 문학
2. 1930~1945년의 김일성원수 항일투쟁과정에서의 혁명문학
3. 해방후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 발전을 위한 당의 정책

5) 본래 이름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문예이론

6) 당조직과 당문학, 레닌의 문학예술론의 중추가 되는 이론이며, 이것의 중심사상은, 문학의 초인을 타도하라, 문학은 프롤레타리아 공동대의의 일부분이다. 문학은 거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기계장치의 톱니바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조직적 계획적 통일적인 사회 과업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레닌의 문학예술론, 이길주 옮김, 논장, 1988, p.52.

4. 전시문학의 전투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의 정책
5. 전후, 사회정치적 환경과 이 시기 당의 문예정책

조선문학 통사

1. 조선신문학의 재출발기, 신경향파문학의 등장
2. 프롤레타리아문학 10년간의 재패와 민족파, 절충파 등 문단춘추시대
3. 파시즘의 대두, 세계의 위기와 현대문학사조의 분화기
4. 위기! 1936년 이후 주조상실과 문학지상시대
5. 제2차세계대전의 열풍과 조선현대문학사상의 암흑기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1. 방법론 비판
2. 근대의식의 성장
3. 계몽주의와 민족주의 시대
4. 개인과 민족의 발견
5.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한국문학사

위의 남북한 문학사 2종의 개요만을 통해서 볼 때도 두 문학사의 기술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것은 남한의 문학사가 개인의 주장과 시각의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문학사가 시종 정치적인 사건과 사회운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북한의 문학사는 위 2종 외의 《조선문학개관》을 놓고 보아도 취급작가와 작품의 수의 다과만 다를 뿐 기술 태도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남한의 문학사는 《한국현대문학사개관》을 놓고 보아도, 唱歌, 新小說, 新體詩 시대, 동인지 시대, 프로문학시대, 詩文學派, 九人會시대로 잡지와 문단활동을 기반으로 한 개요를 볼 수 있어 문학사 기술 태도가 상호 현격함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남한의 문학사는 記述者의 시각과 주장이 최대한 존중되어 있고 북한의 문학사는 특정한 교시와 이론에 얽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굳이 남북한 문학사에서 같은 점을 찾는다면, 남한의 다

른 문학사들에서는 일체 취급하고 있지 않은 작가, 시인 가운데 趙抱石, 李益相, 赤構, 金昌述, 金華山, 朴世永, 송순일, 韓仁澤, 허준 등을 《조선신문학사조사》에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점은 백철이 프로문학파에 직접 관여한 바가 있고 또한 《조선신문학사조사》가 경향파와 프로파에 비중을 두어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일 뿐, 이 사실만으로 남북문학사 서술의 동질성을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한다. 그런 점은 힘의 문학을 주장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북한 문학사의 관점과 김기진의 글의 차이에서도 쉽게 찾아질 수 있다.

이 시기(1920년대) 시인들은 자기들의 창작사업을 근로대중의 혁명투쟁을 고무추동하는 목적의식사업으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창작과 근로인민대중과의 호상관계를 해명하면서 “우리는 저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가장 잘 싸울 방도를 알리기 위하여 시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⁷⁾ 힘, 이것 뿐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살려버리는 힘, 새로운 것을 세우는 힘,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문학도 힘이 있어야 한다. 투쟁 속에서 힘을 노래하고 파괴 속에서 靈性的 음악을 찾아야 하고 建設 위에 美를 찾아야 한다. 理想에 도취하고 激戰에 도취하여야 한다. 그 속에 우리들이 요구하는 예술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붓대와 펜이를 들고 戰線으로 나서라.⁸⁾

위의 두 글은 다같이 신경향파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1920년대 시문학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그런데도 전자는 20년대 시문학을 철저히 목적문학으로 보고 혁명과 투쟁을 위해 싸울 방도로서의 문학으로 간파하고 있다. 말하자면 혁명과 투쟁을 위한 도구로서의 문학이다. 그런가 하면 후자는 김기진이 일본 프로문학에서 정신적 자양을 얻어온만큼 그것이 몸에 밴 것이기보다 공허한 구호와 이상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기진의 논지는 문학을 感傷의 차원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

7)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p. 410.

8) 김기진, Promenade Sentimental,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7, P.10

는 예술로 이해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파괴 속에서 영성의 음악을 찾고 전설 위에서 미를 찾으며 이상과 격전에 도취하여 힘의 예술을 하자는 것이다. 다분히 낭만적 힘의 예술론임을 알 수 있다. 낭만적 힘의 예술론이란 이론을 위한 이론, 혹은 싸울 목표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의 힘의 예술론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북한의 문학사는 개별 작품 보다 이론과 실천 강령에 충실한 일사불란한 통일적인 문학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 남한의 문학사는 《조선신문학사조사》가 20년대 신경향파문학을 서술하는 장에서 김기진의 낭만적 힘의 예술론을 부각시킬 만큼 추상적이며, 《한국문학사》가 20년대 문학의 주요한 흐름인 신경향파 혹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취급하지 않을만큼 개인적이고 다양하다.

남북한 문학사의 기술 태도와 시점이 이같이 대비될 때, 중국 조선족 문학사, 즉 間滿의 문학사⁹⁾ 기술 태도는 어떠한가?

연길시를 중심으로 하는 중국조선족문학사, 즉 간만문학사는 아직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진달래, 杜鵬 등의 잡지¹⁰⁾에 개괄적인 논문으로 간만 문학의 흐름이 소개되고 있거나 그러한 개괄적인 논문에 몇몇의 작가론을 곁들인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간만문학사 정리의 전부이다.¹¹⁾

우리는 아직 “조선족문학사” 한 책 쓰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작가, 작품들에 대한 연구는 근근히 평론 정도에 머물고 있다. 중국조선족문학의 성격, 조선족문학과 국내 형제민족과의 관계, 주요 작가와 작품 등 허다한 리론문제들이 아직 해명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조선족문학에 응당 어떤

9) 편의상 중국조선족문학사,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 중국조선족현대문학에 대한 고찰, 중국조선족 당대문학발견개요 등을 아울러 間滿문학사라 통칭한다.

10) 중국조선족이 가진 잡지는 1919년 5·4운동 당시 해불, 붉은 별, 기적소리, 민중, 공산, 등 8종이 있었고, 1935년 북향, 36년 카톨릭소년, 이후 80년대 들어와서 연변문예, 아리랑, 장백산, 도라지, 진달래, 두견, 북두성, 송화강등과 문예연구지로 문학과 예술 등이 간행되었고 1984년 현재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의 회원이 300명, 이중 30명여명이 중국작가협회회원이다.

11) 이 방법의 단행본으로 임병승, 권철의 조선족문학연구(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가 거의 유일한 것이다.

작가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도 똑똑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¹²⁾

이와 같이 간만문학사는 아직 영성한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의 문학사 정리에 대한 욕구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다. 서상의 몇 가지 간만문학사에 대한 자료를 통해 그들의 문학사 기술 태도와 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간만문학사는 중국 조선문학사이니만치 중국과 조선의 의식과 가치관에 서 쓰이고 있다. 의식으로는 조선족에 가깝고 현실적,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가깝다. 그러기 때문에 작품의 경향으로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한 작품의 생산은 소련의 10월 혁명과 중국공산당 창당의 영향이라고 보는 관점이며, 특히 1911년의 辛亥革命과 1919년의 5·4운동을 문학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조선문학은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새로운 사상영향과 날로 심입되는 반 제 반봉건투쟁의 현실 속에서 조선의 새로운 문학사조와 우수한 문학작품을 직접적으로 접수하며 자라났다.¹³⁾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은 우리나라에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기본적인 결속과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진입을 표징한다.¹⁴⁾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났다는 기꺼운 소식에 접한 그는(김택영) 즉석에서 시를 지어 걱정을 토로하면서 열렬히 환호하였다.¹⁵⁾

간만문학사 기술이 이와같이 작품평가에 의하기보다 정치나 사회운동의 변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의 작품생산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이유에도 기인하는 것이겠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중국민족 속에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장개석을 반

12) 임범송, 권철, 앞 책, 정판룡의 서문

13) 권철, 중국조선족현대문학에 대한 한 고찰, 진달래, 1986, p.364

14) 권철, 김동훈, 중국조선족당대문학발전개요, 두견, 1988, p.354

15) 권철,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 진달래, 1985, p.442

동파¹⁶⁾ 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에게는 문학 이전에 삶이 있어야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 있다는 의식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문학사 기술의 시각은 남한의 문학사 기술 시각보다는 북한의 문학사 기술 시각과 일치한다. 항일운동과 그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창작된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사회주의 사실주의 이념 실현에 이바지한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그런 점은 唱歌의 평가에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북한에서는 근대 이후의 문학보다 창가의 평가에 많은 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간만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남한문학사에서 *《한국현대문학사개관》*에서는 창가를 초창기의 주요한 시가문학으로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서 평가하고 있는 최남선의 <세계일주가> <한양가> 등은 북한문학에서 취급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간만문학사에서도 취급하지 않고 있어 간만문학사 기술 시점이 북한과 일치하고 있음을 이런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¹⁷⁾

2) 문예이론

북한의 문예이론을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 혹은 종자론, 속도전 등으로만 이해할 때 그것은 남한의 문예이론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와 대등한 문예이론이 남한에서는 등장한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남북한 그리고 간만 문예이론을 비교하려 하면 자연히 프로문학과 순수문학의 관계, 문예사조를 보는 눈등의 비교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남한은 순수문학 혹은 계몽문학을 최남선과 이광수를 중심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프로문학에 대해서는 견해에 따라 평가가 유동적이다. 그것은 *《조선신문학사조사》*와 *《한국현대문학사개관》*의 평가가 진폭을 보이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

16) 권철, 앞글, P.364

17) 문학사 기술시절 뿐 아니라 상용언어들도 간만은 북한언어를 쓰고 있다. 원쑤, 마스다, 일떠서다 등의 언어사용이 빈번한 것이 그 예이다.

사에서는 계몽문학이나 순수문학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프로문학만이 유일하게 가치있는 문학이 된다. 몇몇 사례를 통해서 이 점을 보면, 이광수, 최남선의 “조선혼” 주장은 “조상이 물려준 민족정신” 운운으로 시대착오적인 것이며, “사회변혁을 지향해 나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없애버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는¹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프로레타리아 문예평론, 주로 윤기정의 <계급예술론의 신전개를 읽고, 1927> <무산문예가의 창작적 태도, 1927>, 조명희의 <힘의 예술을, 힘의 예술가들, 1927>, 이기영의 <집단의식을 강조하는 문학, 1928> 김복진의 <나형선언초, 1927> 등이 나왔으며, 이 양론이 각축하고 있는 가운데 절충론이 나왔으나 이는 프로문학을 용해시켜 계급성을 없애려고 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몽문학이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없애려는 목적에서 나왔는가 하는 점이며 프로문학이 계몽문학에 타격을 가하면서 등장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광수를 중심으로 한 계몽문학은 여러 가지 비판적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²⁰⁾ 자아의 각성, 세계관의 확립, 미신 타파, 자유연애사상 고취등의 근대의식을 깨우치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최소한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관심을 없애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또한 프로문학이 계몽문학에 타격을 가하면서 등장했다는 것도 계몽문학과 프로문학 사이에 놓이게 되는 창조, 폐허, 백조 등의 낭만주의, 사실주의문학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적 산물이다. 그런 점은 남한문학사에서 프로문학의 주류로 평가되는 박영희, 김기진도 북한문학사에서는, 프로문학 진영 내의 우연분자들인 박영희, 김기진 등이 부르미학을 들고 나와 심각한 장애를 조성²¹⁾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 프로문학의 강령 해석에도 남한이 프로문학을 마르크스이념을 빌어 식민

18) 사회과학문학연구소, 앞책, p.314

19) 앞책, p.315

20) 이광수의 개화의식은 정명환의, 이광수와 계몽사상(성곡농촌1)과 김봉구의, 신문학 초기의 계몽사상과 근대적 자아(한국인과 문학사상, 일조각)에 의해 비판되었다.

21)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앞책, p.315

지 상황의 모순을 극복하자는데 있었는가 하면 북한의 프로문학을 무산 계급운동의 일부분으로 보고 마르크스주의 이념 체현의 수단으로 보고 있었던 데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남북한 문학의 관점의 차가 더욱 큰 것은 문예사조에 관한 것이다. 북한문학이 남한에서 유행한 서구문예사조인 순수예술, 모더니즘, 예술지상주의 등을 부르조아 문예사조로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가능하나 사실주의와 자연주의에 대한 해석은 거의 이해가 불가능한 상태의 것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실생활을 생동하게, 심도있게 그려낸 사실주의적 문예작품만이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습니다.²²⁾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것²³⁾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내용은 작가, 예술인들의 당적 입장, 노동계급적 관점, 인민의 이익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당과 노동계급의 사상, 인민의 지향을 표현하는 것이다.²⁴⁾

위의 사실주의 개념은 주로 유물변증법적 사실주의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를 모순개념으로 보고 이 모순은 필연적으로 대립투쟁을 부르며 이 대립투쟁이 모순을 지양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사실주의 개념은 프로레타리아 사실주의 혹은 사회주의 사실주의 것이며 이것은 또한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입장에 발을 붙이고 사회주의 사회의 이상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학의 가치로 삼는 사실주의이다. 북한에서는 “있는 그대로 그리는 사실주의”는 사실주의가 아니라 객관주의이다²⁵⁾

22) 김일성선집의 인용,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p.82

23) 김일성선집의 인용, 원책, 같은 면

24) 원책, pp.137~138

25)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p.171

자연주의에 대한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에서는 자연주의를 노동계급이 아닌 지배계급의 대변자로서의 기만적 문예사조로 본다.²⁶⁾ 이 관점에 의하면 자연주의는 사실주의의 원쑤이며, 사실주의는 대상을 사진 찍듯이 복사해내는 자연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다.²⁷⁾ 대상을 사진 찍듯이 복사해 낸다함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말하는 사실주의적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남한에서 말하는 사실주의와 북한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의 개념이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북한문학사는 리광수, 럽상섭, 황석우, 오상순 등을 자연주의 작가로 보고 이들 자연주의 작가들은 리태준 등 반동문학가들과 단합하였다²⁸⁾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 문학사들은 자연주의는 곧 반동적 퇴폐문학으로 보기 때문에 립화는 사실주의 간판 밑에 본질에 있어서는 자연주의를 예찬하고 나선²⁹⁾ 작가로 폄하되고 있는 것이다.

간만문학사에서는 특별히 프로문학이라거나 자연주의 문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그들은 대체로 항일시가, 민족시가라는 말을 쓰고 “좌적 사상”이라는 말을 쓰면서 온전한 서술로 일관한다. 사실주의라는 용어도 흔하게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사실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은 북한과 동일하다.

이 시기(20년대) 중국조선족문예창작에서 중심 위치에 놓였던 주제는 당시에 있어서 시대적 정신으로 되었던 근대적 문명개화와 민권 자유 민족독립 자주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었다. 이에 문학창작에는 벌써 심미주의와는 대치적인 사실주의로써 현실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고도 신속히 반영하여 사회적 투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문학주장이 주류로 되었다.³⁰⁾

현실생활과 투쟁을 반영해야 사실주의가 된다는 관점은 산천초목이나

26)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통사, 인동, 1988, p.33

2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북한의 문예이론, 인동, 1989, p.180

28) 조선문학통사, p.170

29) 윗책, p.171

30) 권철,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 p.425

새, 짐승 등 자연모사를 아무리 잘 해도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묘사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의를 갖지 못한다는 북한의 사실주의의 개념과 상통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평가하는 작가 시인도 간만과 북한이 거의 동일하다.

3) 문학사 시기 구분

남북한 문학사, 그리고 간만문학사를 비교 고찰하는데 가장 분명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문학사 기술에 있어서의 시기 구분이다. 문학사의 시기 구분은 단순한 연대기의 구분이 아니라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작품에 대한 평가, 기술자의 史觀,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 등 정신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므로 문학사 시기 구분을 대비해 보는 것은 상호간의 문학, 사회, 역사 등 정신사르 비교해 볼 수 있는 총체적 작업이 될 수 있다. 남북한 문학사와 간만문학사의 시기구분에서 중요한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들을 발췌하되 《조선문학사》《조선학통사》와 《조선신문학사조사》의 시기구분은 위 2의 1항 발췌부분을 참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한국현대문학사개관》과 《한국문학사》 그리고 간만문학사의 시기구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 요약한다.

1. 태동기의 개관

창가와 신소설의 유행

2. 1910년대

신체시와 《無情》 출현

3. 1920년대

문예사조와 혼류와 프로문학 등장

4. 1930년대

순수문학의 대두

5. 일제말기

문학의 민족적 燈臺

한국현대문학사 개관

14 嶺南語文學(第19輯)

1. 근대의식의 성장
《한동록》《열하일기》
2. 계몽주의와 민족주의의 시대
개화기와 최남선 이광수
3. 개인과 민족의 발견
식민지 시대
4. 민족의 재편성과 국가의 발견
해방공간
한국문학사

1. 19세기 후반
조선족의 연변 정착
2. 1919-1931년
창가의 유행과 신채호의 소설
3. 1931-1945년
항일문학시기
4. 1945-1949년
해방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5. 1949-1984년
전국후의 문학

조선족문학연구(임범송·권철) 중국조선족현대문학에 대한 고찰(권철)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권철) 중국조선족당대문학발전개요(권철·김동훈) 등의 시기구분을 필자가 재편한 것

《조선신문학사조사》는 신경향파와 프롤레타리아문학, 30년대 파시즘의 대두와 문예사조의 분화, 1936년의 전체주의 국가들의 세계 제패에 대한 자유주의국가들의 불안, 1939년과 40년대의 제2차세계대전과 문학의 암흑기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어 주로 세계정치질서와 문예사조를 연결시켜 문학사를 기술하려고 하는 태도이고 《한국현대문학사개관》은 연대기와 문단 활동에 시각을 맞추려 한 기술이며 《한국문학사》는 한국문학이 근대화로

접어드는 시기를 조선조 중엽으로 잡고 실학의 대두를 그 정신적 맹아로 보려하며 개화기 이후의 문학도 개인과 민족이라는 근대의식의 유무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문학사》는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는 문학으로 갑오농민전쟁을 반영한 문학과 반일의병투쟁을 반영한 문학, 그리고 1926년, 김일성이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한 해를³¹⁾ 문학사의 주요한 분기점으로 기술한다. 또한 《한국문학통사》는 1919년 3·1운동을 반영한 문학과 30년대 프로레타리아문학, 30년 이후 김일성 항일투쟁과정을 반영한 문학,³²⁾ 해방후 사회주의 건설을 반영한 사실주의 문학, 조국해방전쟁시기(6·25), 그리고 전후시기로 구분하여 북한문학사는 주로 김일성의 항일운동과 6·25 전쟁을 문학사 서술의 분기점으로 잡고 있다.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문학을 정치적 사건과 관련시켜 평가하려는 관점이자 사회주의 이념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 사이에서 간만문학사 시기 구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어느 쪽과 가까운가를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조선족 문학사는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도 않았고 쓰여지지도 않았다. 지금으로서는 위에 든 몇 종류의 것이 거의 전부에 가깝고 또한 문학 연구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는 듯하다.³³⁾ 그러나 이러한 제약을 전제하고 지금까지 쓰여진 문학사 개설서³⁴⁾를 통해 이 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그들은 문학사 시기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조선족문학은 바로 10월 사회주의 혁명과 3·13운동 및 5·4운동의 영향 하에서 반제반봉건 투쟁을 심입전개하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

31)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조선문학사는 “E.C.”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앞책, p.18

32)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운동 과정에서 북한문학의 3대결작이라고 평가하는 꽃파는 처녀, 피바다, 한 자위단의 운명 등이 창작되었다고 북한문학사들은 기술하고 있다.

33) 그런 사정은 연길시에 출판사가 두개소밖에 없다는 데서도 여실하다.

34) 그들 자신이 대부분의 글에 개설이니 개관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던 시기부터 자기의 로정을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에 이르기까지 조선문학은 복잡하고도 험난한 사회적 환경속에서 장성발전하였다. 현대조선족문학은 혁명적 현실의 발전과 더불어 그 내용과 형식이 부단히 풍부화되고 다양하여졌으며 그 전반적 역사과정에서 조선족 인민의 실정과 미학적 요구를 다각적으로 반영하고 자기의 독자적 특색을 구현한 자기의 문학을 창조하게 되었다.³⁵⁾

위의 문면에 드러나는 문학사 기술과 시기구분의 시점은 사회의 변혁과 정치적 사건 중심임을 알 수 있다. 10월 사회주의 혁명, 3·13운동, 5·4운동,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에 시기구분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그러한 복잡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중국조선족문학이 창조되었다고 쓰고 있으니 이는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과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일어난 반일민주대회의 촉발과³⁶⁾ 중국 사상사에 큰 변혁을 가졌왔고 중국 신문화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던 1919년의 5·4운동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조선족 문학의 창조 동인으로 아울러 기술하여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항일운동들이 조선족문학의 모태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문학사 기술의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기 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지 않으면 종족의 유지조차 어려운 그들의 지리적 정치적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남한문학사들이 문예사조나 세계정세를 반영해서 쓰여진 경우가 있고 북한문학사들이 철저히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및 전쟁을 중심으로 쓰여진 것과 시각상 동일한 것이다. 더우기 이점은 1949년 이후의 시기 상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즉

1949—1966년의 건국후 17년의 문학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학

1976—1984년의 새로운 역사단계 진입의 문학

35) 임범송, 권철, 앞책, pp.12~13

36) 중국조선족의 항일운동은 3·13대회 이후 1920년 풍오동 일제섬멸전, 동년 10월에 일어난 청산리 대첩으로 이어진다.

이 그것인데, 이 기간 동안의 문학사 서술은 완전히 중국의 근대사를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도³⁷⁾ 작가와 작품은 조선족의 문학을 취급하고 있어 의식으로는 조선족이면서 현실생활은 중국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는 그들의 이중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간만문학사에서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은 북한과 대동소이하고 특히 창가를 평가하는 시각은 항일운동과 유격대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북한의 시점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한문학사보다 북한문학사와 간만문학사가 창가에 대한 평가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그들이 다루고 있는 창가 중 주요한 것만 뽑아보면 이와 같다.

동심가, 권학가, 학도가, 상봉유사, 개꼬리삼년, 득의천지, 고질난치 등
조선문학 통사

학도가, 수학가, 동심가, 자유가, 3월가, 절개가, 행보가 등
근대조선족문학개관

위에 든 창가에서는 북한과 간만문학사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그것은 남한문학사에서든 권학가, 학도가, 동심가들이 주요한 창가작품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러나 1919년 이후의 시가, 즉 혁명가요에서는 그 양상이 다르다. 혁명가요에서 취급하고 있는 북한 작품은 조선의 노래, 사향가, 조선의 별, 혁명가, 무산청년가, 여자투사가, 소년군가들이고 간만문학사에서는 총동원가, 조선심, 10월혁명가, 불평등가, 빈농민자타가 등이다. 이 창가와 혁명가요들은 문학적 정신이나 시심에서 창작되었다기 보다 현실적인 삶의 필요성에 의해 창작된 것이니만치 시대상과 목적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런만큼 이러한 목적문학의 산물인 창가나 시가를 남한문학사에서 높이 평가할 리가 없는 것이며 나

37) 연변문학이 중국문학의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었음은 인민신보(연길시발행)가 1946, 9월부터 모택동 연안문예강좌를 개재하고 모순, 광말약, 주수리 등 중국 작가의 작품들을 번역 개재한 데서도 드러난다.

아가 이것은 남북한, 그리고 간만의 문학사 기술의 시점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4) 주요 작가 시인

분단 이후의 남북한 문학사에서 다룰 수 있는 주요 작가 시인 그리고 작품은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단 이전, 더우기 개화기 이후 신문학 초창기의 작가 작품에서부터 남북한의 평가와 시각이 다르다는 것은 물론 그러한 문학사 기술이 북한에서는 분단 이후에 쓰여졌다는 이유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은 이광수, 최남선, 김소월, 한용운, 이상화, 이기영, 조명희, 한설야, 김기진, 박영희, 임화, 김남천, 김창술 등 근대 이후의 작가 시인의 경우 뿐 아니라 신채호, 김택영 등 개화기 작가 시인의 경우에까지 해당한다. 필자는 이미 이점에 관해서, 북한문학사에서의 金素月, 李相和³⁸⁾, 북한문학사 記述의 시점³⁹⁾ 등의 논문을 통해 개진한 바 있다. 남한문학사에 주요하게 다루어 온 작가 시인은 문학사의 종류에 따라서 다룰 수는 있으나 대체로, 최남선과 신채호, 이광수와 〈무정〉, 주요한과 〈아름다운 새벽〉, 염상섭의 〈삼대〉, 최서해의 〈탈출기〉, 김동인과 현진건,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채만식의 〈탁류〉, 이상의 〈날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김유정, 정지용, 윤동주, 이태준, 김환태, 안수길의 〈북간도〉, 황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손창섭, 최인훈의, 〈광장〉, 김광섭, 김수영, 김춘수, 고은 등이다.⁴⁰⁾ 북한문학사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작가 시인은 다음과 같다.

19세기 말

유인석 〈세상을 걱정하여〉, 최익현 〈이몸을 일으켜서〉, 전해산 〈옥중에서 읊노라〉, 안중근 〈만세가〉, 김택영 〈의병장 안중근이 나라의 원수를 갚았

38) 북한문학사에서의 金素月, 李相和, 문화비평 4호, 1990, 전

39) 북한문학사 기술의 시점, 민족문론총 11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0

40) 이 이름은 김윤식, 김현의 한국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작가 시인이다.

다는 소식을 듣고), 황현 <무장땅의 의병장 정시해의 죽음을 슬퍼하며>

1910년~1925년

- (시) 강영균 <나의 애원>, 리병옥 <봄의 예포>, 강경애 <이 땅의 봄>
조명희 <봄잔디밭 우에>, 리상화 <바다의 노래> <빼앗긴 들에도 봄
은 오는가>, 김창술 <대도가>
- (소설) 신채호 <꿈하늘>, 양진식 <슬픈 모순>, 현진건 <빈처>, 조명희 <당
숙으로>, 리기영 <간난한 사람들> <민촌>, 최서해 <탈출기>, 나도
향 <환회>, 이익상 <생을 구하는 마음>

1926~1945년

- (시) 이찬 <국경의 밤>, 유완희 <여적공>, 박아지 <나의 노래>, 김창술
<지형을 뜨는 무리>, 권환 <팔>, 박세영 <타작>
- (소설) <피바다> <소는 일떠섰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의 운명>
조명희 <아들의 마음>, 리복명 <민보의 생활표>, 리기영 <민머느
리>
강경애 <채전>, 한인택 <월급날>
- (희곡) 김영팔 <싸움>, 송영 <신임이사장>, 리기영 <인신교주>⁴¹⁾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용운, 윤동주, 이육사 등 남
한문학사에서 항일 민족시인 혹은 시문학의 주류로 평가하고 있는 시인들
이 북한문학사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과 김소월에 대한 평가가 북한문
학사에서는 매우 유보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상화의 시문학상의 위치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뿐 아니라 최남선의 계몽문학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광수의 문학을 색정주의 문학으로 폄하하는 점, 박영희, 김기진을 반동
적 낭만주의자로 평가하는 점, 임화, 김낙천, 이태준을 진보적 작가로 가
장한 패배적 감상문학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 거기다 남한문학사와는 다
르게 이기영, 한설야를 노동계급의 계급적 자각과 투쟁을 고취한 탁월한

41) 이 점에 관해서는 필자의 북한문학사 작품 목록, 문화비평, 3호, 1989년, 후, 4호,
1990년, 전과 북한문학사 기술의 시점, 민족문화논총 11집 영남대, 1990년, 을 참
조.

작가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이다.⁴²⁾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남북한 문학사의 서술이 이같이 다를 때, 또한 간만문학사의 서술은 어떠한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만문학사에서 주요 작가 작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 후반

(시) 김택영<창강고>, 신정<我目淚>, 신채호<한나라 생각>

(소설) 신채호<꿈하늘><룡과 룡의 대격전>

1919-1931년

(시) 창가와 혁명가요 및 리상화, 김소월, 박세영 등 시의 영향

(소설) 조명희, 리기영, 한설야, 라도향 등의 영향과 강경애, 김조규, 안수길 등의 활동

(회곡) 작가미상의 <경숙의 마지막>이 유행

1945-1949년

(시) 리옥<북두성>, <북록의 서정>, 리성휘<양자강에 봄이 오면>

김태희<토지 얻은 이 기쁨 쏟아쏟아>, 채택룡<내 땅에 내 곡식>

(소설) 작가불명<싸트는 대지>, 리한룡<전선>, 김창호<그들의 길>

(회곡) 김학철<승리>, 고철<강제징병>

1949년 이후

(시) 주선우<잊을 수 없는 여인들>, 임효원<전달래>, 김철<새별전>

김성휘<장백산아 말하라>와 종합시집<연변시집><해란강> 등

(소설) 김학철<해란강 말하라><군공메달><항전별곡><격정시대>,

리근전<고난의 연대>, 김용식<규중비사>, 류원무<숲속의 우등불> 등

(회곡) 최정연<귀환병>, 리홍규<피끓는 사랑가>, 황봉룡<새각시>, 김태희<우리조장 동무>, 김세영<5·1전야> 등

중국조선족은 대체로 17세기 초부터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

42) 이 점에 대해서 역시 주 41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하였으나 1677년 이후 200년간 중국동북지역에 대한 清朝의 봉금정책으로 발이 묶였다가 186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이주가 시작된다. 1880년대 청조의 봉금정책이 철폐되자 1902년에 동북조선족 인구는 10만에 달하고 1909년 청조와 일본간의 간도협약이 맺어진 뒤로 이민의 숫자는 늘어나 1920년에 이리러는 50만에 이르게 된다.⁴³⁾ 그리고 이 사이 1900년대 초에 연길에서 교육회 월보가 발행되었고 1919년에 <조선독립신문> <일민보> <조선민보> 등 신문이 발행되었으며 <화불> <붉은 별> <기적소리> 등의 잡지가 발행되어 문학의 생성 기틀을 마련한다. 그러나 위의 작가 작품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간만문학사에서 해방전까지는 특별히 기억할만한 작가 시인이 나오지 않았다. 이 시기까지는 주로 이상화, 이기영, 조명희, 최서해, 나도향, 김소월, 홍명희 등의 영향을 받아 문학의 움이 트는 시기였다. 간만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작가가 김학철인데 김학철도 해방전에는 회곡을 발표하긴 했지만 뚜렷한 활동이 없다가 해방후에 본격적으로 소설을 쓴 작가이다. 초창기 간만문학사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울러 남북한 문학의 영향권 안에 놓여 있었으며, 그러면서도 서구문예사조와 자본주의 체제가 유입된 남한의 문학과는 다른 북한의 항일문학과 사회주의 문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간만문학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가와 작품은 해방전까지는 거의 북한문학사와 같다. 창가를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든지 남한에서는 문학장르에서 제외하고 있는 正論(민중계몽의 논설)을 문학에서 취급하고 있다든지, 연극의 비중을 문학사에서 높게 잡고 있다든지, 남한문학사에서는 유보적인 신채호, 신정, 김택영 등의 우국시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든지, 순수문학을 매도하거나 비판하고 있다든지, 중요하게 다루는 소설이나 회곡이 대체로 부일지주 대 소작농의 갈등을 다룬 내용이라든지 하는 점이 모두 그렇다. 뿐 아니라 최남선, 이광수는 물론, 한용운, 윤동주 이육사 등의 항일 저항문학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이

43) 권철,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 p.420

간만문학사가 거의 북한문학사의 시점을 차용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것은 물론 중국과 남한이 국교가 없었다는 정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간만문학사의 문학의 평가 기준이 이미 사회주의 체제에 깊이 침윤되어 있는 증거임도 알 수 있게 한다.

3. 맺는 말

이상에서 본고는 남북한 문학사와 간만문학사 기술 시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선택된 몇 종의 문학사서를 통해 알아 보았다. 동질성을 찾는다는 것은 남북한과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가 같고 최소한 분단 이전까지의 외침에서 온 질곡의 역사가 같으므로 문학적 현상이 같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실지로 나타난 이 3자의 문학사 기술은 동질적이지 못하다. 그런만큼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사실은 이 3자의 문학사에 나타난 동질성보다 이질성에 비중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점점해 본 남북한과 간만문학사 기술의 이질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 남한문학사들은 기술자의 관점이 다양하여 한 마디로 요약하기 힘들지만, 선택된 텍스트를 통해서 볼 때, 문예사조 및 서구의 사상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와 국내의 문단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 또는 민족을 축으로 근대화를 위한 意識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북한문학사는 記述者의 다양한 관점을 용인하지 않고 수종의 문학사 기술이 거의 통일적이고 일률적이다. 그것은 주체사상 혹은 유일사상에서 나온 문예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문학을 평가하려는 목적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남한문학이 창의적인 이론을 가지지 못한 것에 비해 북한은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종자론, 속도전 같은 자체의 문예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간만문학사 기술의 관점은 독창성이 결여되고 문학의 평가 척도는 북한에 가깝지만 러시아 혁명과 중공

의 근대사에 있었던 정치적 사건을 문학사 기술의 중요한 바탕으로 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둘째, 문예이론, 남한문학사는 남한대로의 독창적인 문예이론을 갖지 못한 한 서구 문예이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지만 북한은 서구문예이론을 부르조아문예이론으로 철저히 배격한다. 거기에서 계몽주의, 순수문학, 모더니즘 등은 반동적이고 색정적인 것으로 폄하되며, 사실주의는 사회주의 혁명과 인간의 생동하는 삶을 그리는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자연주의 역시 사실주의의 원수가 된다.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등의 문예이론도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간만문학사는 특별한 이론이 없고 프로문학이나 사실주의라는 용어도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의 삶의 투쟁을 그린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안목은 북한과 동일하다.

셋째, 문학사 시기 구분, 남한문학사는 관점의 다양성에 따라 문예사조 및 사상의 변천과 문단활동 그리고 근대의 기점 산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문학사는 항일운동과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6·25전쟁을 시기구분의 중요한 계기로 삼고 있어 정치, 사회, 문학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북한문학사의 어느 것에도 예외가 없다. 이 점, 간만문학사는 러시아 혁명, 3·13운동과 5·4운동, 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을 시기구분의 계기로 삼고 있어 중국근대 사회운동을 중시하고 있지만 근대사회운동을 중시한다는 그 점 또한 북한과 동일하다.

넷째, 주요 작가, 시인, 문학사 기술의 관점과 태도가 다른 한 평가하는 작가, 시인, 작품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3자의 차이를 보면, 남한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최남선, 이광수의 평가가 북한은 폄하되어 있고, 박영희, 김기진, 임화, 김남천 등이 반동적 부르조아 작가로 비판되고 있으며, 리기영, 한설야, 김창술 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소월의 평가가 유보적이고 이상화가 근대시의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고평되고 있으며, 항일시인인 한용운, 윤동주, 이육사의 평가가 북한문학사에서는 제외되어 있다. 간만문학사에서는 이 점 역시 북한의

평가를 따르고 있으며 그런 점은 3자간 國交의 유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남북한, 간만문학사 기술이 차이를 드러낼 때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인 국토통일이 되는 날 통일문학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낙관적일 수는 없다. 그랬을 때 평가의 기준과 시점의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문제는 우리의 큰 관심사이다. 3자의 개별적 관심을 존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화해로운 합의의 선택도 더욱 바람직한 문학사 기술의 방법이 되리라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7
 조연현, 한국현대문학사개관(전지), 어문각, 1977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박종원, 최탁호, 류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열사람, 1988
 _____, 조선문학통사, 인동, 1988
 _____, 북한의 문예이론, 인동, 1989
 정홍교, 박종원, 류만, 조선문학개관1, 2, 인동, 1988
 임범송, 권철,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山崎仁, 외, 칼 마르크스, 평범서당, 1986
 레닌, 이길주역, 레닌의 문학예술론, 논장, 1988
 김윤식, 해방공간의 민족문학연구, 열음사, 1989
 〈논문, 잡지〉
 북한문학 어떻게 볼 것인가?, 문학사상, 1989, 6월
 남북문학의 동질성과 이질성, 문학과 비평, 1989, 가을

권 철, 근대중국조선족문학개관, 진달래 제 15기, 1985

_____, 중국조선족현대문학에 대한 고찰, 진달래, 16기(?)

권 철, 김동훈, 중국조선족 당대문학 발전개요, 두견, 1988

이기철, 북한의 문예이론을 통해본 문화와 정치의 역학관계, 문화비평
1989후

_____, 북한문학사에서의 金素月과 李相和, 문화비평, 1990, 전

_____, 북한의 문예이론과 문학성, 인문연구 11집(영남대) 1990

_____, 북한문학사기술의 시점, 민족문화론총 11집(영남대) 1990

外 다수